

기독교대한감리회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6층
TEL 1688-1008 FAX 02)399-4307

감독회장 전 용 재



The Korean Methodist Church

Methodist Building 16F, 149 Sejong-daero,
Jongno-gu, Seoul, Korea 110-730
TEL 1688-1008 FAX 02)399-4307

President Bishop Jun, Yong Jai

【10월 둘째 주, 사회복지주일 성수를 위한 감독회장 목회서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랑하는 6천 5백 감리교회와 150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매년 10월 9일은 사회복지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은 감리교회 내에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노숙인 복지 및 자활, 기부식품제공, 영유아 복지, 청소년 및 여성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이 명하신 귀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돕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하고 행하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만큼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감리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고 말씀하신 뜻을 잘 기억하고,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복지재단에서 행하는 사업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체교회에서도 사회선교활동의 지원과 자원봉사를 계획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주일을 통해 여러분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함이 발현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더욱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 용 재

